

# 농촌가족의 복지환경개선

임 평 자

농촌진흥청 생활개선과장

## 1. 농촌가족의 복지환경에 대한 개념

농촌가족의 복지는 농촌가족원이 느끼는 생활에 대한 행복감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농촌가족의 복지환경 요소는 농촌가족 또는 가정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이나 조건, 사회문화적 여건, 그리고 인적요소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가족의 복지환경개선은 “농촌가족이 이들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하며 그들 생활에 행복감을 느끼는 상태, 즉 바람직한 복지상태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노력”으로 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

## 2. 농촌가족 복지환경개선사업의 현황과 전망

### 1) 농촌생활개선사업

농촌가족의 복지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중 그 역사가 오래되고 비교적 체계있게 이루어진 사업으로 농촌여성의 지위향상 및 능력개발, 과학적인 생활기술의 보급으로 농가생활의 질 향상 및 복지문화생활의 증진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추진주체는 농촌진흥청이며 사업의 내용은 농촌진흥청의 다른사업과 연계된 농가생활과 농작업환경개선에 한정되므로서 미시적 영역에 국한될 우려가 있으나 농촌복지행정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개별농가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추진체계는 농촌진흥청 - 도진흥원 - 시·군 농촌지도소의 위계를 갖고 있고, 각 위계별로 정무2장관실·보건복지부·농림수산부(본청), 도(진흥원), 시군(지도소)의 가정복지·여성인력 관련부서와 연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각 위계별로 민간단체인 생활개선회와 긴밀한 연계관계를 맺고 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은 생활지도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데 본청에 54, 도진흥원에 56, 지도소에 652명 등 총 762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본사업의 재원은 특별기금, 국비, 지방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1994년도 생활관련사업비는 총 6,895백만원으로서 전체지도사업비의 4.3%에 머무르고 있어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투자열위를 반영하고 있다.

### 2) 각부문별 사업현황 및 성과

#### (1) 물리적 환경(농촌주거환경과 농작업환경)개선

농촌생활개선사업의 물리적 환경개선부문은 주거환경과 농작업환경의 개선분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 중 주거환경개선분야는 농가의 편의시설확충과 생활환경보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농가주택의 기본적인 편의시설(Basic Amenities)을 개량·확충하기 위하여 1983년부터 융자금지원에 의한 부엌개량, 1990년부터는 부엌개량과 더불어 목욕실을 설치하도록하여 1995년까지 126,000호에 1,337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주거환경개선은 농촌생활환경의 종합적 개선, 경관조성, 옥외공간조성 등에 대한 노력이 매우 미흡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농촌주거환경부문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도과제로 첫째, 물리적 환경개선을 계속 지속시키되 주거생활과 관련된 정신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노력(건전한 생활태도, 주거관리, 정리정돈, 실내공간 꾸미기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둘째, 주택외부공간과 전원공간의 조화를 바탕으로 하여 농촌의 자연환경보전·경관조성에 주력하며, 셋째, 온수자동난방, 쓰레기처리, 재활용, 식수대 조성에 의한 방음대책 등 쾌적환경보전 등을 과제로 삼고 있다.

농촌여성의 영농참여율이 높은 밭작업과 시설영농작업의 경우 작업환경이 열악한데다 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94년 농촌진흥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농부병 발생율이 남성 경영주가 13.9%인데 비해 농가주부는 26.4%로서 거의 두배에 이르고 있는데 이러한 징후는 농작업의 피로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한다 그 원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1995년 6월말 현재 비닐하우스 중간휴게실 1,057개소, 건강관리실 870개소, 마을공동쉼터 853개소가 설치·지원되었으며 건강관리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농민건강시설의 지원과 함께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농작업보조기구가 개발되고 있는데 1995년 6월말 현재 활용되고 있는 실적은 5개 작업유형(① 파종·정식·시비·제초작업, ② 농약살포 ③ 수확 ④ 운반·포장 ⑤ 기타)에 15천여개가 활용되고 있다.

### (2) 경제사회문화환경의 개선

농가경제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농촌여성 일감갓기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사업은 국비·지방비 지원의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1995년까지 총 468개소의 사업장에 6,900명의 농촌여성이 참여하였고 3,037백만원의 자금이 지원되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농외소득이 평균 15~24%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함께 합리적인 가게운명을 할 수 있도록 1993년부터 농가용 가게부를 매년 15,000부씩 제작하여 생활개선실천농가와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소비자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농가의 생활문화 향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식·주생활 및 가정관리, 취미교양, 전통문화, 예절, 여성지위향상, 시민의식, 환경보전 등 다양한 생활과학기술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과학관, 문화생활관 등의 설치, 교재의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매년 17개소(93년기준 12개소)에 대한 실습기구 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도 농촌진흥원과 농촌지도소에 평균 100평이상 규모의 교육관을 신축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농촌문화생활 시범마을의 지정·운영, 향토유물전시관의 설치도 권장하고 있다.

농촌주민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므로써 지역구성원으로서의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4H회, 농어민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를 활성화시키고, 특히 생활개선회를 명실공히 전국적인 농촌여성조직으로 확대개편하여 농촌여성인력의 농촌사회발전에 대한 자발적 참여기회를 크게 신장하였다.

### (3) 농촌가족 인적 환경의 개선

농촌가족구성원의 영양관리와 균형식 섭취를 지도하기 위해 1994년의 경우를 보면 영양식품의 생산·조리·가공·저장법을 21,300농가에 보급하였고 116회(14,000명 참석)의 식생활 공개강좌를 실시하였다. 우리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식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시주부들을 대상으로 41개소의 농산물 장터 및 소비자의 방 운영, 도시아파트 주부교육(18,000참석), 지도사교육(220명) 등이 이루어졌다.

화목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각종 교육과 행사에 1994년에 56천 농가가 참여하였으며 특히 농촌주부의 노동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효율적인 가사분담지도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부부 또는 혼자 살고 있는 농인들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소외감과 고독감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을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촌가족구성원의 자아의식과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식적인 교육, 비공식적인 상담 등을 통해 지도하고 이들의 체험과 작품을 발표케 하므로써 자아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영농정보탐색 프로그램의 보급으로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 3. 결 론

농촌생활개선사업의 실제적 지도업무 수행자인 생활지도사의 직무훈련·인력관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재고시키는 것이 앞의 논의에서는 생략되었지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부처별·기관별로 다기화되어 있는 사업의 협동과 조정을 위하여 지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계층별, 연령별, 세대별, 성별 등 다양한 대상별 복지환경 구현과 농촌가정이 복지수준에 대해 갖는 객관적·주관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농촌가족의 복지환경개선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고 농촌여성 전문직업교육을 활성화시키므로써 농촌정착을 유도하는 시책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며, 민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